

도내 지자체 상품권 인기 없다

인센티브 없고 가맹점 등 사용지역 제한돼 80%이상 공무원이 구매 '천덕꾸러기' 전락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지역 상품을 살리기 위해 자체 상품권을 잇달아 발행하고 있으나 상품권 사용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는 데다, 가맹점과 판매처도 제한돼 있어 효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영암군은 8억 원 상당의 '영암사랑 상품권'을 발행, 지난 2월 12일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나 6개월을 넘어서 27일 현재 발행액의 39%인 3억1천만 원이 팔리는데 그쳤다.

구매자 역시 군청과 산하기관 공무원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일부를 구입하고 있을 뿐 일반인은 거의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도 지난 2월 10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나 이달 현재 판매

액은 6억 원으로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품권 구매자도 대부분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지역 기업체에서 수요층이 극히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여수과 곡성, 담양 등도 7년여 전부터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주민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지자체 상품권이 효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맹점 및 판매처가 일부 시장과 점포,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특정 지자체가 발행한 상품권은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품권 사용에 따른 특별한 인센티브도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사야하는' 불편을 감수하려 하



지자체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 지역 시·군들이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다. 지난 23일 담양읍 백동 시거리에서 상품권 애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담양군청 공무원들. (담양군제공)

지 않는 것도 지자체 상품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상인들이 상품권 환전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상품권 취급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지자체 발행 상품권을 잘 알지 못하는

데다, 현금이나 카드만 이용해왔던 종전의 구매방식을 선호하다 보니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들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실적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강진 청자문화제 내달 8일 '팡파르'

'흙과 불, 인간(土·火&人)' 주제로 직접 반죽해서 빚어보는 체험행사 강진만 바지락캐기 등 부대행사도

6년 연속 문화관광부 최우수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강진 청자문화제가 다음 달 8일 개막된다.

'흙과 불, 그리고 인간(土·火&人)'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 12회 청자문화제는 다음달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 일대에서 열린다.

청자문화제는 기획행사와 전시·공연, 체험, 부대행사 등 5개 부문에 70여 가지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특히 9일간의 축제기간을 만남(개막일), 회람(9일), 나눔(10일), 가족(11일), 살바(12일), 차와 청자(13일), 화합(14일), 결실(15일), 약속(16일) 등으로 나눠 관련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

가족이나 연인 등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만도 20종류가 넘는다.

화목가마 불 지피기로 시작하는 문화제는 유명 개그맨이 진행하는 개막 축하공연을 비롯, 외국인과 함께 하는 낭만 콘서트 등 즐기고 보고 느끼는 행사가 이어진다.

진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유약을 바른 청자를 굽고, 직접 빚어보는 각종 도자기 체험행사는 축제 참가자가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다.

화목가마용 장작 패기와 강진만 갯벌에서의 바지락 캐기, 폐농기계 로봣체험, 고려시대 왕 체험, 청자 도판 찍기 등 다양한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실버하모니 악단 공연, 하산베를레, 강진 신진들 노래, 가을밤의 청자콘서트, 스포츠댄스 경연대회, 비보이 공연 등 20여 가지의 각종 공연도 마련된다.

최고의 청자명품을 시중가보다 2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장을 비롯해 축제현장에서 뽕농을 수 없는 먹거리 장터, 농수산 특산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향토특산물전도 운영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카이스트 50만원, 서울대 45만원, 이화여대 25만원...

광양시, 명문대 합격 고교에 장려금 '논란'

"자치단체가 대학 서열화·입시 교육 부추겨"

광양시가 명문대학교와 지방대 인기 학과에 학생을 진학시킬 경우 해당 고교에 인센티브로 금품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2008학년도 대입 시험에서 관내 고 3학년생이 카이스트(항공과학기술원)와 서울대, 포항공대, 고려대, 연세대 등 명문대와 지방대 의·치·약학계열에 합격할 경우

학생 1인당 수십만 원씩을 학교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별 금액은 카이스트에 합격할 경우 50만원, 서울대 45만원, 포항공대 40만원, 고려대 35만원, 연세대는 30만 원이고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각 25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사관학교와 경찰대학교에 합격할 경우 50만원을, 교육대학교 지

방대학 의·치·약학계열에 합격할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치단체가 대학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지방 도시의 경우 인재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차원에서 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한여름밤 재즈에 빠져 볼까"

그룹 '화이트 데이' 오늘 저녁 옛 영산포역 공연

재즈그룹 화이트 데이는 박 교수를 비롯해 전원준(피아노) 동신대 겸임교수 등 미국 유명 음대 출신 교수 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무대는 화이트 데이 멤버 외에도 강선아(보컬) 동신대 외래교수 등이 특별출연자로 참여하고 동신대 실용음악학과 밴드 '워크온'

이 오픈 무대를 연다.

'타이타닉', '시네마천국' 등 낯익은 영화 음악과 대중가요 '육경이' '남행열차' 등 재즈 스타일로 편곡한 명곡들이 선보인다.

박 교수는 매주 서울 재즈 클럽에서 정기공연을 갖고 있으며 미국에서 개인 음반을 발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현대하이스코 편입 '어디로'

행정구역 개편 싸고 순천·광양시 또 이견

순천시와 광양시 경계에 있는 현대하이스코(순천공장)이 어느 시로 편입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천시와 광양시 관계자들은 지난 29일 모임을 갖고 공장 부지가 양 자치단체의 경계에 있는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대하이스코는 행정구역이 조정되지 않는 바람에 전력과 수도공급, 치안, 소방, 노사문제 등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신속히 한 자치단체로 편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대하이스코의 지방세 납부 규모가 연 55억 원에 달해 순천시와 광양시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현대하이스코는 공장 부지

가 차지하는 면적에 따라 8대 2 비율로 순천시와 광양시에 지방세를 나눠 납부해왔다.

이와 관련 순천시는 공장 부지의 80% 가량이 순천에 속해 있고 명칭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인 점 등을 들어 당연히 순천시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광양시는 매년 10억 원 가량 되는 지방세 수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뿐 아니라 울진산단 입주 예정인 일부 기업 부지도 순천과 광양, 여수 경계에 놓여 있어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을 경우 기업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자치단체장들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양=김춘호기자 chkim@

"광양 매실, 믿고 구입하세요"

내년부터 지리적 표시제

앞으로 '광양 매실'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순천·광양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내년부터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에서 생산되는 매실 포장에는 원산지가 표기돼 일부 타지역산 매실이 광양매실

로 둔갑돼 판매되는 폐단을 없게 됐다.

광양지역은 매화 개화기인 3월과 4월 평균 기온이 11.3도로 타 지역 보다 1~4도 높아 늦서리 피해가 적기 때문에 매실재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매실 재배 면적은 599ha에 이른다.

특히 광양매실은 수분과 당도, 산도, 구연산 함량이 높아 타지역 산보다 비싸게 팔린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오늘부터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재개

산림청 산림항공관리본부가 31일부터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를 재개한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지난 20일 충남 공주에서 방제작업에 나섰던 산림청 헬기가 추락,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

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잠정 중단돼 왔다.

한편 영암 산림항공관리소는 중형 헬기 2대를 투입해 도내 전체 밤나무 면적(1만6천586ha)중 76%의 항공방제를 마쳤다./영암=김한빛기자 hnkim@

황금닭 가족의 나들이



강진군 작천면 한 농가의 대나무 숲속에서 어미 닭을 따라다니며 먹이를 찾아 먹는 병아리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강진군은 한약재인 '황금(黃鶩)'을 사료로 먹인 오골계와 토종닭을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있다.

무안군 양파 재배면적 10~20% 줄이기 운동

무안군이 양파 줄여심기 운동을 추진한다.

무안군은 내년산 양파 파종시기를 맞아 올해보다 '재배면적 10~20%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군은 양파 생산자 단체 및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순회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이 마을을 방문해 적정 면적재배를 유도하고 있다.

또 주요 지점에 양파줄여심기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양파 가격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군이 재배면적 줄이기에 나서게 된 것은 올해 양파 가격이 전년의 60%, 예년의 80% 수준으로 낮게 형성된 데다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가격 파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보성 울포 해수욕장·해수욕장 전국서 54만명 다녀갔다

울포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54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1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성군은 올해 해수욕장 시설에 최신 놀이 시설을 설치한데다 기업체 하계 휴양소 유치에 주력했다. <사진>

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했다.

또 현대 삼호중공업과 캐리어 등 대기업 휴양소를 유치해 이들 회사 가족 1만2천여명이 보성을 다녀갔다.

보성군은 경찰서와 소방서, 여수

해양경찰서, 회천 청년회 등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발생도 없는 안전한 피서지로 관리했다.

/보성=안규일기자 giahn@



불법 광고물 부착 '곰도 꾸지 마'

목포시 가로등에 방치대 설치...사고 위험도 줄여

사고 위험도 줄이고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봉쇄하는 다기능 '불법 광고물 방치대'가 목포시내 가로등에 설치됐다.

목포시는 최근 하당 신도심 백년로와 중앙로, 영산강 하구둑 도로변 가로등 424개에 ㈜맥스코리아가 새로 개발한 최신 불법 광고

물 방치대를 설치했다.

이 방치대는 높이 2m, 두께 12mm의 우레탄 재질로 돼 있으며 감전 위험 제거는 물론 충돌시 충격을 완화해 주고 특수 도료로 스티커 등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 봉쇄하는 다기능 제품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